2024년 3월 5일 오후 6:29

박채영 작가님께.

작가님 안녕하세요.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임솔아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메일이 제가 쓸 원고에 일부 사용될 수도 있겠지만, 원고를 쓰기 위해 작가님께 메일을 쓰는 것은 아니에요. 작가님의 책을 읽고 작가님과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의 매일 메일을 쓰며 살고 있지만 이런 메일을 쓰는 건 아주 오랜만이에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떤 말로 시작을 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고. 긴장이 되네요.

자전적인 소설을 몇번 쓴 적이 있어요. 덕분에 종종, 꽤나 수치스러운 질문을 받곤 합니다. 첫 책이 나온지 올해로 9년째인데, 이런 질문에는 적응이 되질 않아요. 그때마다 저는 사람들의 대화방식이 참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곤 했어요.
최근에는 조금 다른 경험을 했습니다. 제 소설 속 인물과 비슷한 경험을 한 분께서 제게 말을 걸어왔어요. 한 명은 아니었고요. 여러 명이었어요. 제 소설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인물이 나온 적도 있고, 장애를 갖고 있는 인물이 나온 적도 있는데요. 아마 제 소설을 읽고 동질감을 느꼈을 것이고, 그래서 제게 말을 건네왔겠지요. 그런데 막상 저는 무척 당황해버리고 말았어요. 제가 어떤 대답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나도 비슷한 경험을 했다고 말하며 내 이야기를 말해야만 하는 걸까? 과장되게 반응하는 것도, 무심하게 반응하는 것도 마음에 걸리더군요. 돌아서서 집으로 올 때에는 울고 싶은 마음이 되고 말았어요. 그때에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사람들의 대화방식이 이상하다고만 생각했는데, 나도 이럴 때 어떤 대화를 해야 하는지 모르는구나. 그런 대화를 나눠본 경험이 너무 없어서 그럴 거예요. 날씨 이야기나 요즘 유행하는 드라마, 사회적인 이슈에 대한 나의 생각 같은 것들은 많이 말해보았지만, 정작 내 안에 맺혀 있는 이야기들은 글로만 써볼 뿐 누군가와 찬찬히 이야기해본 적이 거의 없었어요. 영어 회화 책을 보면 카페에서 주문을 할 때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처음 만난 친구와 어떤 식으로 대화를 나누어야 하는지 예시 같은 것들이 잘 나와 있는데, 그런 예시가 제 안에조차 없었던 거죠.
많이 서툴지만 채영님과 대화를 나누어보고 싶다는 생각에 더듬더듬 적어봅니다.

하자센터에서 운영(?운영이 맞는지 정확히 모르겠네요)하는 음식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어요. 제주도 애월에 있는 음식점이었는데요. 집에서 버스로 왕복 세시간 정도 걸리는 먼 곳이었는데, 꼭 그곳에서 일을 해보고 싶어서 이력서같은 걸 넣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그때 제주도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몇 주씩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는 때도 있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탈학교 청년들이 일하는 곳이라면 저와 비슷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한 거죠.
그곳에서 두 명의 쉐프를 만났어요. 제가 채영님의 나이를 정확히는 알지 못하지만, 아마 채영님과 비슷한 또래가 아닐까 싶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환대해줬어요. 그 친구들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잠을 잔 적도 있었고, 그 친구들과 같이 사는 강아지도 만났어요. 한번은 제게 검은 빵을 주었는데요. 그때 갈색 빵봉투에서 나는 냄새가 너무 좋아서 그 봉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답니다. 그때 그 친구들 덕분에 제주도에서 잘 지낼 수 있었어요. 그 친구들이 저를 돌봐주었고, 또 지켜주었다고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 생각해볼수록 참 이상하고 신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세상에는 누군가를 돌보기 위한 갖가지 시스템이 있고(학교처럼요) 가족이라는 강력한 제도도 있는데, 저는 그 제도들이 제 말을 잘 들어주지 않는다는 느낌을 꽤나 받았거든요. 채영님께서 병원이라는 시스템이 정작 채영님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느꼈던 것처럼요. 그런데 살면서 마주친 어떤 사람들은 제게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않으면서도 제 곁에서 저를 지켜주었죠. 교통사고를 당했을 때 이런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가입했던 보험 회사에서는 저를 집요하게 괴롭혔고, 반대로 그저 스쳐지나가도 되었을 여행자들은 저를 이유없이 돌봐주었어요.

작가님의 책을 읽으며 저와 접점이 많은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웹진 <비유>에서 어째서 작가님과 저를 연결해줬는지 알 것 같기도 했고요.
병원의 시스템에 대해서라거나 먹는 것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들지만, 너무 길게 제 이야기를 적는 것이 채영님께 어쩌면 부담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네요. 사실 위의 내용도 갑자기 너무 내밀한 이야기를 쏟아낸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 짧은 글을 쓰며 무척 진땀을 흘렸네요. 어렸을 때에는 쉬는 시간마다 친구들에게 편지를 쓰곤 했었고, 모르는 사람과 펜팔을 한 적도 있었는데. 편지 한 통을 쓰는 것이 어쩌다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어버렸나 싶어요.
이 메일을 보내는 데에 다른 목적 같은 건 없어요. 그러니 답장에 대한 부담은 갖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저 채영님의 글이, 저한테 온 편지처럼 느껴졌나봐요. 그래서 저도 답장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임솔아 드림

*

2024년 3월 11일 오전5:44

안녕하세요 임솔아 작가님. 박채영입니다. 답장을 쓰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 새벽 번쩍 눈을 뜨며 다짐했어요. “오늘은 꼭 답장을 하겠다.” 그리고 오랜만에 샤워를 했습니다. 샤워를 하며 또 다른 다짐

을 했습니다. “무례를 범해야겠다.” 답장을 하려면 무례하다고 느끼는 말이라도 하고 말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네, 이것은 혹시 모를 창피함을 피하기 위해 깔아 놓는 사족입니다.

사실 저는 작가님의 소설을 세 번이나 읽어 놓고도 아직 글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작가님의 편지를 받고 감사하면서도 죄송했지요. 저의 글을 깊이 있게 읽어 주신 작가님과 달리 저는 작가님의 의도에 가 닿지 못한 것 같아서 말이에요. 솔직히 고백하자면 저는 소설과 그렇게 친한 인간이 아니어서, 그렇게 문학적인 인간이 아니라고 스스로를 생각하는지라 작가님의 작품으로부터 어떻게 출발해야 할지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장을 쓰기가 어려웠습니다. 작가님의 글은 편지마저도 참 신중하고 따뜻하여 문학적으로 느껴졌거든요. 연필로 쓰다 몇 번이고 지우고 다시 쓴 편지를 받은 느낌이라 가볍게 툭, 답장을 써서는 안 된다는 책임감 같은 걸 느꼈어요. 그러다보니 답장을 숙제처럼 느꼈던 것 같습니다. 작가님의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을텐데요.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자센터 출신의 요리사들이 운영하는 식당(?) 이야기는 참 반갑네요. 영셰프들의 이야기일까? 궁금했어요. 제가 하자센터에 있을 때 제 또래 요리를 배우는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영셰프라 불렀습니다. 한때 저와 같은 공간을 나눴던 사람들이 작가님에게 따뜻한 시간이 되었다는 소식에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런 소식을 들을 수 있어 감사하고, 그런 소식을 듣게 해준 그 친구들에게 또 감사함을 느낍니다.
얘기치 못한 돌봄, 당연하지 않은 관계에서 발생하는 돌봄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고 오래도록 좋은 기억으로 남는 것 같습니다. 저를 지금까지 지켜준 것들도 그런 예상하지 못한, 당연하지 않은 돌봄들이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직 그런 주고 받음이 가능한 땅에 살고 있음이 다행이고 감사하기도 하네요.

요즘 저의 돌봄 이슈는 혈연 관계 속에서의 돌봄인 듯 합니다. 15년 만에 엄마와 살게 되었거든요. 오랜만에 엄마는 다시 ’아픈‘ 저와 마주 했고 저 또한 ’늙은‘ 엄마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살게 된 두 마리의 고양이. 거기에 더해 밀도 높은 ’시골 사회‘와 관계 맺기 등등. 그동안 제가 관심 갖고 고민 했던 돌봄 이슈는 도시 중심, 비가족 중심이었음을 조금씩 깨닫고 있는 와중입니다. 혼란의 과정 속에서 글을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 번 해보려고요. (호호호…)
문득, 작가님의 소설 안에서도 혈연 관계가 비혈연 관계 보다 조금 더 차갑게 그려졌던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저의 착각일까요?

작가님은 어떻게 이 소설을 떠올리게 되셨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소설 도입 부분에 초파리를 관찰 묘사하는 대목은 참으로 정교하여 아름다웠어요…!!)
작가님에게 ’해피엔딩‘은 무엇일지도 궁금했어요.
저에게 항상 유효한 질문 중 하나는, 질병서사에서 해피엔딩은 ’완치‘일까, 이거든요.

모든 질문에 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물론 답장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어떤 말이 돌아오든 전부 반갑게 읽을 거예요.

그럼,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

채영 드림

*

2024년 **3**월 **11**일 오후 **8:59**

박채영 작가님, 안녕하세요.
오전 5시 44분에 메일을 보내셨군요. 처음에는 숫자만 보고, 이 분도 정말 늦게 주무시는구나 했어요. 메일을 열어보고 나서야 늦게 주무신 게 아니라 일찍 일어나신 거구나, 했답니다. 저는 이제야 일어나 밥을 먹었고, 그러니까 제게도 이것이 아침 메일이에요.

글의 갈피는 저도 전혀 못 잡고 있어요.ㅎㅎ 제 글만 쓰며 지냈지 다른 분의 글을 읽고 리뷰를 쓴 경험은 손으로 꼽을 정도로 드물거든요.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써야 할지 정말이지 모르겠습니다.ㅎㅎ 그치만 저는 문학

적인 대화를 하고 싶었다기보다.. 그저 작가님과 대화를 하고 싶었던 거니까. 그냥 그 마음으로 쓰면 되겠지, 막연하게나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그 친구들을 영셰프(?)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부르지는 않았지만, 식당에 비치되어 있던 잡지에 그렇게 적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슬로비'라는 곳이었거든요. 어쩌면 정말 채영님과 같은 공간에 있었던 분들일지도 모르겠네요.

제 소설에서 혈연관계가 비혈연 관계보다 조금 더 차갑게 그려졌다 느끼셨다면, 맞아요. 작가가 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글을 쓰고 싶다'라는 다짐 같은 것들이 생겼는데요. 저는 '비혈연관계에 대해 더 집중하겠다'고 생각을 했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가족이 너무 중요시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특히나 의료 시스템 같은 '제도'에서 가족이라는 울타리에 들어오지 않은 사람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지요. 응급수술을 받아야만 했는데 가족으로부터 수술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던 적이 있어요. 비혈연관계지만 가족과도 같았던 사람들이 대신 보호자 서명을 하겠다고 하였지만, 안된다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물론 제 주변에는 대안가족에 대해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이야기를 담은 책들도 많이 출간되고는 해요. 하지만 제 주변 분들이 한국에서 다수의견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제도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입장을 생각하게 된 건 고등학교를 그만두면서부터일 거예요. 물론 좋은 사람들도 많이 만났지만, 사회로부터 소외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많이 느낀 시간이었어요. 얼마 전에는 친구들과 노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노후'라는 단어가 너무 아득하고 캄캄하게 느껴지더군요. 정규직이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제게 여전히 일을 줄지도 알 수 없고, 결혼을 하거나 자식을 낳지도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혼자일 수 있겠지요. 결국 노후에 대한 저의 암담함은 제도 바깥에서 고립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생겨나는 것 같아요.

'시골 사회'에 대해서도 궁금한 게 많아요. "시골사회에서의 관계맺기"에 대해서 작가님이 어떻게 쓰실지 정말 궁금합니다. 이십대 초반에 시골 생활이라는 것을 해본 적이 있는데, 어떤 방식의 '승인절차' 같은 게 있다고 그때의 저는 느꼈던 것 같아요. 제주도에서 살 때에도 비슷한 걸 느꼈는데요. '괸당문화'라고 하죠. 괸당문화로부터 인정을 받은 외지인과 그렇지 못한 외지인의 생활이 크게 차이가 난다고 느꼈고, 승인을 받는다면 살기 참 좋기도 한데, 또 정말 어렵다, 라고 생각했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시골에 살고 계셔서 가끔 시골에 가고는 해요. 주민 분들이 초인종을 누르지 않고 현관문을 불쑥 열고 들어와 기겁을 하고 놀란 기억이 있어요.ㅎㅎ 거기는 원래 그렇다 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엄마가 아플 때 주민들이 찾아와 국도 놓고 가주고 그랬대요. 엄마를 생각하면 주변에 그런 주민들이 계신 게 참 감사한 일인데. 모르는 주민이 엄마 집에 불쑥 들어올 때마다 저는 다른 방으로 호다닥 도망가기 바쁘답니다.

'치유'에 대해서라면, 저는 치유라는 개념을 믿지 않아요. 마음의 상처에 대해서는 우선 그래요. 제가 사고로 약간의 장애를 갖고 있다는 것도 그 이유 중 하나일 거예요. "지금은 괜찮아졌냐"라는 질문을 몇 번 받아보았는데, 그때마다 대답하기가 곤란했거든요. 장애라는 건 회복이 불가능하니까요. 괜찮아질 수 있는 일은 아닌데, 그렇다고 내가 지금 안 괜찮은 것도 아니고… 괜찮아졌다는 게 도대체 뭘까. 난감하더라고요. '괜찮다'라는 말이 무엇을 정상으로 상정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불만이 있었고요. 하지만, '치유'라는 개념을 어쩔 수 없이 믿어야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고는 해요. 책에서는 '암에 걸린 사람'을 예로 자주 말하더라고요. 말기 암에 걸려 있는 사람, 암이 낫지 않는다면 죽음밖에는 남아 있는 것이 없는 사람, 그래서 치유를 철썩같이 믿어야만 하는 그런 사람 앞에서 '치유'라는 것이 거짓된 개념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설을 쓸 때에는 '치유'를 희망적인 해답으로 제시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혈연관계에 대한 얘기보다 비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쓰려 하는 마음과 비슷한 맥락이에요. 치유를 해답으로 제시하는 이야기는 이미 너무 많고, 그런 태도를 인류가 내면화한 것이 의료계를 발전시킨 면도 물론 있겠지만, 사람들을 고립시키고 그 고립을 정당화한 것도 사실이니까요.

여기까지 읽고 조금 의아하실 것 같아요.ㅎㅎ <초파리 돌보기>라는 소설은 위에서 말한 것을 거의 안 지킨 소설이니까요. 가족 이야기를 한 것도 그렇고, '치유'라는 결말을 선택한 것도 그렇지요. 제게는 조금 어려운 선택이었어요.
다른 지면에서 밝힐 생각은 없지만, 그 소설은 제 어머니가 아프실 때에 쓴 소설이에요. 지금도 다 낫지는 않으셨고요. 엄마가 다 낫는 소설을 써달라, 라는 부탁을 엄마에게 받고 소설을 쓰기 시작했지요. 사실은 그 소설을 못 쓸 거라고 생각했어요. 치유가 희망이 되는 결말이라니… 저는 그런 걸 믿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 소

설을 쓰기로 했는데, 엄마의 부탁을 정말로 들어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작가로서가 아니라 엄마의 딸로, 엄마를 위해 또 나를 위해 그 부탁을 들어주고 싶었어요.
제가 아플 때 사람들이 제 의견을 존중해줬으면 좋겠는 것처럼, 저도 엄마의 생각을 존중해주고 싶었어요. 제가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말예요. 하지만 소설을 가만히 보면 제가 엄마의 생각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게 곳곳에서 티가 나는데…;; 그건 엄마의 소설이 아니라 제 소설이기 때문이겠죠.

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보다 비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적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혈연관계에 대한 이야기도 충분히, 잘 다뤄지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야기는 많았지만 이야기되는 그 방식 그대로 얘기된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랄까요. 그래서 작가님께서 혈연관계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쓰실지 궁금합니다.

사실 작가님께 궁금한 것들이 좀 있어요.
길게 적었다가 지워버렸네요. 제 질문이 너무 부족한 것 같아서요.
작가님의 메일을 읽으면서, 정말 세심하고 다정하게 질문을 적어주셨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무례한 질문을 받는 걸 너무나 싫어했기 때문에, 작가님의 질문이 더욱 반갑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작가님처럼 질문을 잘 하고 싶었는데,
답을 적는 것보다 질문을 적어나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는 사실만 깨닫게 되었네요.

못 드린 질문은 제가 공부를 통해 혼자 알아나가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언젠가 다시, 작가님과 잘 얘기를 나눠볼 수 있음 좋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ㅎㅎ
둘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은 것 같지만.ㅎㅎ

만약 쓰다가 말씀하실 것이 있다면 언제든 메일 주세요.
결국 밤이 되어서야 메일을 다 썼네요.
오늘은 이만 줄이겠습니다.

임솔아 드림

*

2024년 **3**월 **19**일 오전 **9:40**

작가님
마감은 잘 하셨나요? 저는 오랫동안 갈피를 못 잡다가 어렵사리 마침표를 찍고 글을 발송했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쓸 때 개운한 느낌이 드는 글이 있는가 하면 마지막 문장을 여러 번 지웠다 쓰기를 반복하고, 결국 외면하듯 마감하는 글이 있지요. 이번 글은 후자였습니다. 제 글을 읽고 작가님이 실망하면 어떡하지, 작가님의 소설과 내가 잘 만난 걸까, 자신이 없다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어쩌겠어요, 마감을 해버렸는 걸요. 훌훌 털고, 제 글은 잊고 작가님의 글을 기다리려구요.

어젯밤에는 내내 바람이 세게 불더니 오늘은 아침부터 함박눈이 내렸습니다. 땅이 하얗게 변하는 듯하다가 곧 전부 녹아버렸어요. 엄마는 눈을 보더니 돋아나던 싹들이 다 얼었겠다고 속상해 하셨죠.
하루종일 눈이 내릴까, 바람이 불까, 했는데 갑자기 하늘이 맑게 개었어요.
시골에 와 좋은 점은 이런 날씨의 변화, 땅의 변화, 하늘의 변화를 잘 포착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서울에는 없는 고요가 낯설다는 저의 말을 듣고 어떤 분이
“그런가요, 저는 시골이 늘 소란스럽다고 느꼈는데. 새 소리, 바람소리, 풀소리..”
라고 하셨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서울에는 없는 소란이 시골에 있다는 것을.

이 고요가 나에게 익숙하지 않을 뿐,
이곳의 소리를 듣는 귀가 내게 아직 없을 뿐이라는 것을.
역시 ’나‘라는 경험의 세계는 좁구나 싶었습니다.

메일을 적는 저의 책상 위로 햇살이 쏟아집니다.
작가님의 방 창 너머로는 무엇이 보일까요?

잠에 드신지 얼마 안 된 시간일 수 있겠다 싶네요.

마감이 힘들지는 않았는지, 쓰고 나서 마음은 어떠셨는지, 아직 마감을 하지 못하신 건 아닐지, 아니면 이미 금방 끝내고 저보다 먼저 휴식을 시작하셨을지, 궁금했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기를 바랄게요.
나쁜 꿈 없이, 좋은 잠이었기를..

채영 드림